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제5학기 목회자세미나 『강해설교와 영적갱신』 주제로 3월 28일 개강

예언자 정신과 사도 정신이 회복되는 강단이 되도록 온 교회가 기도와 봉사로 동참하자

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한 제 5학기 목회자 세미나가 3월 28일에 개강한다. 5월 30일까지 10주간 매주 월요일마다 강남 YMCA 대강당에서 열릴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강해설교와 영적갱신」으로 성경의 보석이라는 로마서 강해를 통해 강해설교의 모범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권위있는 국내 석학들의 이번 세미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강의를 통해 영적 갱신의 방향을 심도있게 제시하게 될 것이다.

지난 2년간 4학기에 걸친 목회자세미나를 통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경향 각지에서 모인 많은 목회자들은 겸손한 자세로 재교육을 통해 혁명적인 자기 갱신이 우선 되어야 할 것에 동감하고 개교회주의적 사고를 탈피해 ‘하나님의 목회(God’s ministry)’를 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모색해 왔다. 또한 성도들은 이 모든 일이 한국교회 갱신에 기여하는 일임을 알고 은사를 따른 다양한 모습으로 곳곳에서 한마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모든 발전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교회의 진정한 발전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데에 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고 갖가지 위기가 날마다 우리를 위협하며 모든 가치가 도치되어 혼란한 때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던 예언자적 정신과 사랑의 복음을 강조하던 사도 정신이 진정으로 회복되어 한국교회에 빛나간 것을 바르게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교회 안에서 바로 세워지며, 신앙과 모든 생활의 표준이 되는 성경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기도와 봉사로 동참하자.

한국교회갱신연구원

김치(KIMCHI)동문회 창립 총회

교회의 갱신과 성장에 연합하며 협력키로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 목회자세미나 4학기를 수료한 108명이 동문회를 구성하고 오는 21일(월) 오후 2시 여전도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진다. 거듭되는 목회자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고 교회갱신의 도전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른 목회를 위해 서로 격려하고 목양을 위한 자료들을 수집, 교환하며 무엇보다도 교회간의 진정한 연합에 초석이 되고자 하는 데에 동문회의 목적이 있다. 또한 동문회원들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앞으

로의 활동에 협력할 예정이다.

동문회원에게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모든 프로그램과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목회자료를 항상 제공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며, 미국 신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해 강의와 교회 탐방의 기회를 가질 계획도 있다.

이날 모임에서는 예배를 드린 후 「기독교 영성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이종윤 목사의 특강, 동문회 창립 경과보고와 임원선거, 교제의 시간 등을 가질 예정이다.

제 5학기 목회자 세미나 프로그램 주제 - 『강해설교와 영적갱신』

일시	제 1 교시 14:00 - 15:30	제 2 교시 15:50 - 17:20
3/28	로마서강해 이종윤 서울장로교회 Ph. D. St. Andrews	현대목회의 문제점과 제안 김영한(숭실대 / Ph. D. Heidelberg대)
4/4		21세기 한국교회의 설교사적 전망 이만열(숙대 / Ph. D. 서울대)
4/11		예언자들의 설교와 영적갱신 민영진(성서공회 / Ph. D. Hebrew대)
4/18		바울의 설교와 영적갱신 박용만(ACTS / Edinburgh대)
4/25		성경해석과 강해설교 제지영(포항북부교회 / Ph. D. Clairmont대)
5/2		설교자의 영성과 교회갱신 류기종(한국문화신학연구소 / Ph. D. Drew대)
5/9		주제설교와 강해설교 정성구(총신대 / Ph. D. Free대)
5/16		설교와 목회심리 심상권(기독교상담문화연구원 / Ph. D. Clairmont대)
5/23		설교구상과 실제 김소영(기독교서회 / D. D. Manahath대)
5/30		고난의 역사와 한국의 미래 김상철(변호사 / Ph. D. Cand. 서울대)

육사세례식 집례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도 지난 12일(토)에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을 후원하고 생도 130명, 장교 10명, 그리고 군인가족 중 유아 9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창세기강해



문을 닫으신 여호와

(창세기 7장 1 ~ 16절)

이 종 윤 (목사·당회장)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백 이십년이라는 긴 시간 세월동안 평지도 아닌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노아를 향해 주변 사람들은 아마도 그를 조소하고 꾀박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완성했습니다(6:22). 그 긴 세월동안 비방을 참고 방주를 완성하기까지도 어려웠는데 방주에 들어간 후로도 일주일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니 노아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이것은 방주를 짓는 동안의 조소를 참는 일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 그 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 본문이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1. 신학적인 문제

노아 사건을 놓고 지금까지 몇가지 신학적인 질문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창세기를 읽다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되어있고 또 어느 곳은 '야훼'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엘로힘(Elohim) 하나님 이면 'E'로 시작하고 야훼(Jehovah) 하나님은 'J'로 시작이 합니다. 그래서 소위 자료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 당시에 두개의 자료가 있어서 이것을 합쳐서 편집한 것이 창세기라고 하면서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인용하실 때에 분명히 '모세의 글'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 기록된 것이 틀림 없으며 위의 의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 7장 16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이시고 구원주로서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두번째는 7장 2절에 방주에 정결한 짐승은 일곱쌍씩 부정한 것은 암·수 들씩 들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은 암·수 일곱씩 넣으신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위해서, 그리고 홍수 기간 방주에 있는 동안 노아 식구들의 양식을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세번째는 6절에 나오는 홍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공창의 물과 땅의 물을 갈라 놓으셨습니다. 이 갈라 놓으신 두 원천적인 물의 근원이 다시 합쳐지는 것을 "칠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육백세 되던 해 이월 곧 그 달 십칠일이라 그 날에 큰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라고 말씀하십니다(10절). 그 하늘의 물들과 땅의 물들이 합쳐지므로 인하여 온 지상이 온 세계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표현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2. 구원의 안전보장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에게 문이 닫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안전한 것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이 방주 사건에서 문이 닫히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안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엡4:30)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니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보장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크신 은혜

만일에 비가 오기 전에 방주의 문을 먼저 닫아 주시지 아니했더라면 그 방주는 가라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한 보안 장치와 아울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칠일동안 방주 안에서 비가 오기만 쳐다보고 있지를 않고 홍수가 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로 들어오라고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

고 비웃기만 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수없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치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가고 칠일을 더 기다려 주시는 때와 같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번 계시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노아의 심정으로 이 소리를 외쳐야 될 것입니다.

4. 은혜의 때가 끝남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칠일이라는 기한이 지나니 문이 닫히고 비가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문을 열어 놓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문이 닫혀지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5. 노아의 순종

노아는 창세기 6장 3절에서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고 즉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인격과 배경을 가지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노아가 믿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에 이른다는 이 진리를 우리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인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거짓없이 주님을 만나야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있던 무성한 채 열매가 없다가하여 예수는 저주를 하셨습니다. 대부분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얼마든지 있건만 어찌하여 주님은 열매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열매를 맺은 후 잎이 나는 고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예수는 열매를 기대하고 찾아가셨던 것이다. 그러나 선전만 요란하게 하고 내용없는 거짓 장사꾼처럼 남의 눈을 속인 무화과 나무는 결국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튿날에 일어난 사건이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주님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저주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영원한 진리를 거짓으로 대하는 위선자에게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도리어 심판주가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 민족이 진리 안에서 주님을 진실되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봉사와 교회 사랑의 함수관계

봉사는 교회사랑에 정비례한다.

홍 정 선

(집사 · 지하에서 차량봉사)

지난 여름, 우리 가족이 여행하면서 우리 교회 안내지와 목회자세미나 팸플릿을 가는 곳마다 전한 적이 있었다. 가능하면 여러 곳에 교회의 근황과 목회자세미나를 알려 될 수 있으면 보다 더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하셔서 교회개신의 주역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였다. 내 신앙생활 중에서 교회생활에 이처럼 애착을 가져 보기는 부끄럽지만 처음이다. 교회 일이라면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고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으로 지내던 과거 내 모습에 비추어 보면, 스스로도 놀라곤 한다. 이 모든 태도의 변화는 목회자세미나 뒷편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한 값진 소득이 아닐 수 없다. 봉사의 시작은 존경하고 있는 장로님께서 권유하시기에 개인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했던 단순하고 인간적인 동기에서였다. 처음에는 봉사하시는 분들과도 잘 몰라 서먹 서먹하기만 했다. 그러나 횡수가 거듭될수록 내가 할 일을 찾게 되었고 여러 봉사자들도 은사와 적성에 따라 전담하는 분야가 생겨 질서있고도 효과적으로 일을 대처해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간 다른 봉사자들의 모습을 통해 얻은 감동들은 내 신앙생활 깊은 곳까지 영향을 준다. 연로하신 분들의 경륜에 따른 지혜로운 일처리 모습. 부지런하고 자상하신 권사님들의 모습. 어느 집사님의 시종여일한 모습, 젊은 남자 집사님들의 든든한 헌신, 전국 각지에서 오신 목회자들에게 마치 천사대접하듯 섬기며 기뻐하시는 모습들... 봉사는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 사랑과 정비례함을 생각할 때, 무엇이든 남보다 더 수고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봉사자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사랑이 자리하고 있을까를 가늠해 보곤 한다.

부족한 나에게 시간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업을 주셔서 이 아름다운 일에 동참케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사를 드린다.

김밥 말고 차 대접하기 보다 우선 할 일

구원의 기쁨과 기도로 무장하는 일

김 명 속

(집사 · 복도에서 식사봉사)

다섯번째 목회자세미나가 시작한다고 하니 분쟁을 일으키고 갖가지 모양으로 상처받게 하는 사탄의 장난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로 무장해야한다는 생각부터 든다. 오실 목회자들의 섬기시는 교회들과 오고 가는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깊은 기도를 드려야겠다. 지난 학기에는 보조의자를 놓고도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꽉 찼던 그 열기를 잊을 수 없다. 여러 번 계속되다 보니 마치 무슨 행사인양 으레적이 되어 버리기 쉬우나 참석하시는 그 많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그 분들을 통해 쫄을 먹고 자랄 수많은 성도들이 있으니 우선 기도의 짐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권사들은 목회자들에게 대접할 김밥을 만드는 일에 이젠 선수가 되었다. 토요일부터 장을 보고 준비하며, 월요일 새벽기도 후면 마치 잔치를 준비하듯 즐거움이 넘친다. 한편에서는 집사들이 YMCA로 옮겨갈 물건을 정리하고 신고 나르는 일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그 모든 물건과 음식들은 손발이 착착 맞는 봉사자들에 의해 다시 YMCA에 재진열된다. 남자 집사님들은 봉사하시려고 근무 시간을 다른 사람과 바꾸기도 하고, 회사에 가면 사장님으로 대접을 받으시는 집사님도 시키는대로 무엇이든 한다. 일당을 주어도 못한다고 할 굳은 일들을 땀으로 옷을 다 적셔가며 한다. 어떤 이들은 마지막 정리하는 일이라도 동참하겠다고 직장이 끝나기가 무섭게 달려와 의자를 옮기고 쓰레기를 치우고 한다. 다리가 통통 붓도록 서 있어도 목회자들에게 안내하는 일로라도 한국교회를 위해 조그만한 기여를 한다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안내위원들이다. 탁한 공기의 복잡한 지하에서 차량안내를 하는 일도, 접수대에서 등록을 받으며 명찰을 나누어 드리는 번잡한 일도, 또 유명한(?) 「서울 찾집」에서 목회자들 각양의 취향에 따라 차를 대접하는 일도 구원의 기쁨과 기도의 무장없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목회자 세미나 동문회 준비위원 모임에서

“이것도 갱신해야 할 일 아닌가요?”

지난 14일(월) 목회자세미나 동문회 창립을 준비하는 모임이 있었다. 회의에 앞서 준비위원들은 어떠한 고난에도 전도인의 일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할 것(딤후 4:3-5)을 다짐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단회적,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목회자세미나가 있지만, 학기별로 계속 되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강의를 들으며 평생목회원에 다니는 듯한 든든함을 느낀다는 어느 전도사님께서는 실행일치와 신본주의 삶에 대해 도전을 받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운동을 전개하면서 본인의 삶도 많이 변화하고 활기를 되찾았다고 하셨다. 대부분 목회자들이 목회자세미나가 열릴 때마다 묵묵히 수고하시는 봉사자 여러분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고 감사의 말을 잊지 않으셨다.

그간 지식적인 것도 많이 얻었으나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목회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 각오를 새로이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개혁에의 도전은 큰 것이어서 근검 절약 하는 생활 등 생활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재고하게 되었다는 분도 있었다.

펼기할 수 있는 책상이 아쉬웠고 의자가 불편하더라는 목회자의 건의를 들으며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세미나를 진행할 수 없음이 안타깝기만 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의 변화와 각오들이 오간 동문회 창립 준비 모임에서는 창립일 당일의 모든 순서에는 기존 관행에 의한 불필요한 절차들은 생략할 것을 동의했다. “그런 것 역시 우리가 먼저 갱신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라고들 하시며,

목회자세미나 현장에서 도울 수 있는 일

- * 식사와 간식준비, 배식 - 재료구입 하는 일부터 월요일 새벽예배 마치고 조리, 포장하는 일까지. 집라면, 빵, 우유와 각종 차 준비와 대접, 권사들이 담당하고 여전도회원들이 협력함.
- * 차량안내 - YMCA 정문과 지하 차고 등에서 차량 유도, 주차 안내
- * 동선안내 - YMCA 정문과 현관 입구, 엘리베이터와 복도, 회의장 입구에서 강의실까지 안내.
- * 접수, 명찰 배부 - 새로 오신 분의 등록을 도우며, 출석 점검, 명찰 배부.
- * 테이프, 책 보급 - 설교테이프와 필그림출판사에서 간행하는 서적 판매 및 관리
- * 좌석안내 - 강의실 자리 정돈과 안내, 예배위원이 담당.
- * 유인물 배부 - 당일의 교재와 주보 「순례자」 등을 준비하고 배부, 모세선교회에서 담당
- * 음향조정 - 마이크 설치, 조정, 녹음
- * 강의 전 - 의자와 탁자 배열, 현수막 설치.
- * 강의 후 - 의자와 탁자 수거, 강의실 정리, 정돈.

가능한 시간에 잠깐씩 오셔서 도우셔도 큰 힘이 됩니다.

브니엘
어느날의 일기

용기있는 사람

자 신에게 어떤 손해와 고통이 올지라도 오직 공의와 진실만을 따르는 사람은 참으로 용기있는 사람이라 하겠다. 혈기를 부리며 유익을 구하는 자는 목숨을 건다해도 만용이 될 뿐이다. 돈 봉투를 공개한 어느 국회의원의 용기. 그는 참으로 선량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고 이를 본 국민들의 가슴을 모처럼 후련하게 했다. 내 일을 책임질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기성세대에게는 회개와 방향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는 외로운 투쟁을 각오했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있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에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서 우리는 용기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 왔지만 오늘날 아간과 욕의 세 친구들, 홍해를 건너고도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진정 용기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이기에 그가 외친 진실은 더욱 빛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 용기있는 사람일까?

✧ 우리 이웃 살느고 보기 ✧ 『사랑의 연수원』이 뭐니까?

대통령이 될지도, 대학교수가 될지도 모를 청소년들이 사소한 죄로 교도소에 가야하는 현실! 세상물정 모르는 아이들에게 교도소란 오허려 온갖 범죄자들에게 온종일 범죄 강의만 듣는 곳이 되고 만다. 그래서 더 이상 무서운 현실을 방치할 수만은 없어 제대로 된 시설에서 심리학자, 목사, 교수들을 모시고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고자 1992년 12월, 이종운, 손봉호, 정연희, 공덕귀, 정영숙...등 기독교계의 뜻있는 분들이 모여 만든 곳이 『사랑의 연수원』이다. 이 운동에 참여하고자 국내외 많은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 최근 성업 중인 『사랑의 세탁소』 황경혜 집사는 세탁소 수익금 전액을 『사랑의 연수원』 건립기금으로 쓰겠다는. 옷도 세탁하고 귀한 일에 동참도 할 수 있다니 『사랑의 세탁소』를 이용해 주심이 어떠실지? (☎703-5016)

목회자 동정

- 이종운 목사는 지난 7일 새문안교회당에서 있었던 연목회 주최 신학 연구모임에서 「도시교회 목회전략」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하였다.
- 이종운 목사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교회발전위원회 정기모임을 24일(목) 오전 여전도회관에서, 목회신문 정기이사회를 24일(목) 오후에 감리교 여선교 회관에서 각각 주재한다.

실업인선교회

조찬기도회

- 3월 22일(화) 오전 6시 5층예배실
- 강사 / 이종운 목사
- 실업인 선교회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특별히 실업인 전도대상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교회당 신축을 위한 터전을 허락하소서
2. 목회자세미나와 킴치세미나를 은혜 중에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3. 주님의 남은 고난에까지 동참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4.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종운 목사 - <야고보서 강해> 출간



이종운 목사의 「야고보서 강해」가 필그림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은 이종운 목사가 목회자세미나에서 강해한 것을 모아 엮은 것으로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전장을 40장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주일을 제외한 날에 교회 테이프 보급실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생명의 말씀사」에 총판을 의뢰하여 전국 서점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국판 352면 / 6,000원)

남선교회, 여전도회 임원기도회

우리교회 교역자들과 남선교회, 여전도회 임원들이 지난 17일(목) 밤부터 18일(금) 새벽까지 소망수양관에 모여 기도회를 가졌다.

192명이 참석한 이날,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일꾼들은 요나서의 말씀을 오늘의 교훈으로 받아 나라와 교회를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고 각 지회별 모임을 통해 교구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 하였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나의 갈길 다가도록」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